

‘누벨바그 대모’ 아녜스 바르다 회고전

광주극장-광주시네마테크서 16일까지 ‘라 푸앵 쿠르트로의 여행’ 등 9편 상영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끈 감독들 중 유일한 여성감독으로 ‘누벨바그의 대모’라 불렸던 아녜스 바르다(Agnes Varda, 1928~2019)의 회고전을 오는 16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3월 갑작스런 타계 소식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과 애도를 받은 아녜스 바르다는 누벨바그의 유일한 여기사수로 91년의 생애 동안 50여 편이 넘는 장·단편의 연출작을 꾸준하고 왕성하게 창작해온 감독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여성의 목소리를 영화에 담기 시작한 선구자였으며, 영화의 형식을 자유롭게 오가며 매번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낸 혁신적인 연출가였다. 제72회 칸영화제는 그녀를 추모하며 아녜스 바르다가 첫 영화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을 촬영하던 모습을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로 지정해 마지막 현상을 바쳤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타계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아녜스 바르다의 장편 데뷔작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1955)부터 이별을 고하는 아름다운 유작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2019)까지 9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저예산으로 빠르게 찍은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은 ‘까이에 뒤 시네마’ 세대보다도 5년 일찍 새로운 영화를 발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바르다를 주목받는 감독으로 만들었다.

1962년 두 번째 장편 ‘5시에서 7시까지의 클레오’, 1965년 연출작 ‘행복’을 통해 페미니즘과 사회비판을 주제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간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는 진보적인 실험을 내세워 평단의 무한한 지지를 받았다. 바르다는 1971년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343명의 선언’에 서명한 여성 지식인이었으며, 1977년에는 자신이 직접 시네-타마리스(Cine-Tamaris)라는 제작사를 설립했다.

‘시네-타마리스’의 첫 번째 작품은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였는데, 페미니스트의



1977년 작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1962년에서 77년에 이르기까지 약 15년에 걸쳐 두 여성의 우정이 68혁명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 과정과 맞물리면서 묘사된다.

시선으로 여성이라는 존재에 찬사를 바치는 이 영화는 15년에 걸친 두 여성의 우정과 여성운동의 과정을 그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2015년 아녜스 바르다는 제68회 칸국제영화제

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게 됐는데, 이는 2002년 우디 앨런, 2009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2011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이었다. /이연수 기자

문화 브리핑

- ◇월요콘서트 ‘Hello! Baroque’=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정세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1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김이곤의 11시 클래식산책 ‘시는 선율을 타고’=11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아라벨라 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임지영 매수 리프먼 듀오 리사이틀=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보태니컬아트회원작품전시회=11일~18일 서구문화센터 전시실
- ◇브런치 콘서트 ‘서울발레시어터의 무브즈 MOVES’=12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 ◇미디어아트338 기획전 ‘휴식동굴 338’ 윤재호 작가=12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338
-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윤한의 shall we dance’=13일 오후 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청년작가 최종음 개인전=13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 ◇무등갤러리 전시지원 프로젝트4 ‘누대EYE’ 전=13일~19일 무등갤러리
- ◇광주 우리 가곡 부르기 제122회 연주회=14일 오후 6시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 ◇조우리 제5회 클리넷 독주회=1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학생연극제=1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 ◇뮤지컬 ‘지킬 앤하이드’=14일~1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2시) <사진>
- ◇박찬호 사진전=15일~28일 갤러리해움
- ◇원화전시 ‘아빠와 아들’=15일~30일 서구문화센터 계단
- ◇비움박물관 여름 기획전시: 조각보전=15일~8월 15일 비움박물관
- ◇광산아트플러스15 ‘플로잉 나눔전’=15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
-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16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중앙홀

바흐와 비발디의 음악세계 ‘헬로! 바로크’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2019월요콘서트-원더풀 바로크 20’ 여덟 번째 무대로 (사)문화예술진흥회의 ‘헬로! 바로크(Hello! Baroque)’를 선보인다.

바로크 시대 음악은 궁정과 교회의 활동 범위를 기초로 칸타타, 수난곡, 미사곡, 오라토리오 종류의 성악곡들과 파사칼리아, 파르티타, 푸가형식의 기악곡들이 많이 작곡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르티타 2번 BWV 1004’를 비롯, ‘마태수난곡 작품번호 244번 중 주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G선상의 아리아’, ‘푸가의 기법 BWV 1080’ 등과 함께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사단조’ 등이 연주되며, 바이올린 이준성과 조국영, 비올라 윤서아, 첼로 김민수와 김도영, 피아노 이가민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날 무대를 장식할 (사)문화예술진흥회는 2007년 3월에 설립돼 ‘삶을 위한 예술’을 캐치프레이즈로 문화예술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전문예술법인이다. 쿠아라 앙상블, 오케스트라, 성악가 등 다양한 뮤지션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활동과 정기연주회(40회),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월요콘서트 ‘헬로! 바로크’ 출연진.

순회음악회(41회), 명사 음악회, 희망나눔음악회, 봉선동 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로 관객들과 함께하며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월요콘서트 ‘헬로! 바로크’는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1만 원.

문의 062-670-7942. /이보람 기자

광주 여배우의 힘 ‘여덟명의 여자들’

19~22일 공동예술극장

광주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이 모여 만든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이하 광주여우회)가 프랑스 유명 블랙코미디 ‘여덟명의 여자들’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극은 1950년대 프랑스의 한 저택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고립된 저택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욕망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프랑스에서는 유명 영화감독 프랑소와 오종의 연출로 지난 2002년 영화화돼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유럽영화상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검증된 작품이다.

지난 1998년 ‘여덟명의 여자들’을 처음으로 선보인 광주여우회는 이번 공연에서 가정의 불안정 애착 문제 등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시각을 담아내 공연의 깊이를 더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이 모여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정경아, 고난영 등은 물론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연극 ‘발톱을 깎아도’의 양정인 연출이 배우로 출연한다.

‘여덟명의 여자들’의 유지영 연출은 “이번 작품이 광주 여성 연극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공동예술극장에서 진행되며, 전 석 2만원.(월~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

평일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리며 전석 가격은 2만 원이다. 문의 010-9440-9391. /이보람 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